

이와테 교류회 감상문

60150131 엄진영

학교 홈페이지를 둘러보던 중, 올해도 어김없이 이와테 대학과의 온라인 교류(연수)에 관한 공지사항이 올라왔다. 2020년도 1학기에 이와테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희망했지만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 못했었기에, 누구보다 큰 기대를 가지고 교류회를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교류회는 군산대학교 학생들도 함께 참여했다.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교수님의 지도하에 진행되었다. 먼저 각 대학 별로 학생들을 화, 목 나누어 그룹을 만들었고 1시간 가운데 30분간 그룹 토의를 했다. 이후 나머지 30분은 그룹 간에 오고갔던 이야기들을 짧게 정리해 발표하며 그에 대한 다른 그룹들과 교수님의 질문 등을 받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주를 제외하고 총 8번의 모임 기회 중 2번은 교류회 전체 모임, 나머지 6번은 주제별 토의를 하게 되었다. 주제는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코로나의 감염과 관련된 주제, 성소수자와 같은 민감한 이야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현지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지역 격차에 관한 토의와 연애편과 결혼관, 당장 우리가 직면한 취직과 수학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그 가운데서 흥미로웠던 것을 꼽자면 수학과 취직에 관한 이야기였다. 코로나 시대로 돌입한 지 2년이 다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 기초학력 미달의 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갑작스럽게 바뀌게 된 교육 시스템에 학생과 교사, 양쪽 모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학생들의 경우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 등이 부재한 경우 금전적인 부담을 느껴 학습에 대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공교육을 처음 받는 초등학생, 혹은 그의 양육자들이 금전적인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찾아보았지만 굉장히 찾기 힘들었다. 그에 비해 일본은 스마트 기기가 없는 가정에는 고등학생들 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된다고 했다. 공교육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었다.

또한 취업에서도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일본의 경우 대학 재학생들은 4학년 1학기부터 취업활동을 시작해 빠르면 4~5월, 늦어도 10월의 경우 내정을 받게 된다. 또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큰 변동 없이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반면에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고등교육에 열심이지만, 대졸 취업률은 그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인문계의 경우 50%대로 더욱 심각했다. 물론 인구 구조 등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건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열된 교육열과 경쟁으로 인해 대학 진학이 지나치게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대학은 취업 양성소로 변한 지 오래되었으나 대학과 국가는 그 흐름에 맞추지 못했고,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일본 고졸 취업의 경우도 무려 99%라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그 가운데서는 명목상의 취업이 숨어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취업지망고등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나라이다. 그렇기에 공통점도 많지만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들도 있었다. 일본처럼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들이 있다면, 세계적으로는 한국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 실감하게 되었다. 19년도 이와테 현지와 한국, 그리고 20년과 21년도의 온라인 교류회 총 4번의 이와테 대학의 교류에 참여하였다. 교류회를 통해서 이국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나 자신을 확장해가는 과정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와테 대학과 다른 자매학교들과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좋은 프로그램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